

## A.K에서 手三陰經과 근육의 상관성에 대한 한의학적 고찰

장관호 · 송윤경 · 임형호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교실

### The Oriental Medicine Study of Correlationship in SuSamUm-meridian with Muscles in A.K

Kwan-Ho Jang, O.M.D., Yun-Kyung Song, O.M.D, Hyung-Ho Lim, O.M.D.

*Dept.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Objectives:** The Applied Kinesiology(A.K) doctors diagnose and treat a patient by using muscles related to 12 main meridian. The purpose of study is to make it clear what the Correlationship in SuSamUm-Kyung of 12 Joung-Kyung with Muscles in A.K is.

**Method:** In the Lung meridian and the Heart meridian, the Sidong · Sosang-disease and the referred pain of related muscles are used. In the Pericardium meridian Correlationship in the Kidney with the lower limbs and the Pericardium with the Kidney is used.

**Results & Conclusion:** Summarized as follows.

1. The Lung meridian is related to the triceps and the levator scapulae in the Sidong · Sosang-disease and the serratus anterior in the symptoms of the muscles' stiffness.
2. The Heart meridian is related to the subscapularis in The Applied Kinesiology(A.K) the referred pain of the subscapularis and KukCh eon-hole of The Heart meridian.
3. The Pericardium meridian is related to the correlated muscles in the correlationship the Kidney with the lower limbs and the Pericardium with the Kidney.

**keyword :** Applied Kinesiology(A.K), SuSamUm-meridian, Referred pain, Sidong · Sosang-disease

## I. 서론

응용 근신경학(Applied Kinesiology, A.K)은 1964년 George Goodheart가 도수 근육검사로 환자의 근육을 평가하면서 시작된 학문으로 그 이후 서양의 여러 수기요법과 영양학, 동양의 경락학, 침술등이 더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응용 근신경학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체의 불균형을 근육의 도수 검사를 통해 파악하고 치료에 있어서도 인체의 불균형과 관

련된 근육의 문제를 바로 잡음으로써 증상을 완화한다는 점인데 예를 들면 대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대장과 관련된 근육인 슬근과 대퇴근막장근등을 치료함으로써 대장의 기능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東洋의 經絡에도 적용되는데 응용 근신경학에서는 인체의 주요 근육들을 12正經에 각각 배속하여 진단과 치료에 이용하고 있다.<sup>1)</sup>

물론 이러한 배속의 많은 부분은 응용 근신경학을 임상에 이용하는 여러 의사들의 가설과 경험에 의한 것이지만 저자는 이에 대한 한의학적인 접근

■ 교신저자 : 임형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20-8 경원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재활의학과 교실  
Tel: (02)425-3456. Fax: (02)425-3560. E-mail : omdlimhh@chollian.net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12正經 중 手太陰肺經, 手少陰心經, 手厥陰心包經의 手三陰經에 대해 各 經絡의 是動·所生病 및 관련근육의 방사통, 그리고 心包經에서는 命門相火의 연관성을 통해 연구해본 바 약간의 지견을 얻어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 II. 본 론

응용 근신경학(Applied kinesiology)에서의 수삼음경과 연관된 근육 및 근육의 기시 및 종지부 그리고 수삼음경의 시동병, 소생병을 고찰하여 도표로 정리하였다.

Table. I A.K에서 수삼음경과 연관된 근육들<sup>1)</sup>

經絡	연관된 근육
肺經	삼각근(전방, 중부, 후방), 견갑거근, 전거근, 오혜완근
心經	견갑하근
心包經	봉공근, 박근, 내전근,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상근, 비복근, 가자미근, 후경골근, 단무지굴근, 장무지굴근

Table. II 手三陰經의 是動·所生病<sup>2)</sup>

經絡	是動病	所生病
肺經	病肺脹滿, 膨脹而喘咳, 缺盆中痛, 甚則交兩手而脅, 此爲臂厥	咳, 上氣, 喘, 渴, 煩心, 胸滿, 臑臂內前廉痛厥, 掌中熱, 氣盛有餘, 則肩背痛, 風寒汗出中風, 小便數而欠. 氣虛則肩背痛寒, 少氣不足以息, 溺色變.
心經	病益甚, 心痛, 渴而欲飲, 是爲痺厥	目黃, 脇痛, 臑臂內後廉痛厥, 掌中熱痛
心包經	心中熱, 臂肘掣急, 腋腫, 甚則胸脅支滿, 心中愴愴大動, 面赤, 目黃, 喜笑不休,	煩心, 心痛, 掌中熱

Table. III 수삼음경과 연관된 근육들의 기시 및 종지<sup>3)</sup>

근육	기시	종지
삼각근	전방	쇄골의 외측 1/3
	중부	견봉돌기
	후방	견갑극극의 외측부
견갑거근	C1-C4 횡돌기의 후결절	견갑골 상각
전거근	상부	제1번 늑골
	중부	제 2-3번 늑골
	하부	제 4-9번 늑골
오혜완근	오혜돌기의 정점	상완골의 중간, 상완삼두근과 이두근 사이의 내측부
견갑하근	견갑골의 전내면	상완골 소결절의 전내면과 관절낭의 하반부
봉공근	전상장골극	경골의 내측근위부
박근	치골체와 치골하지	경골내과의 원위부 내측면
내전근	치골결합 부분	대퇴골의 내측면
대둔근	장골의 후면, 천골의 후외측면, 미골의 측면,	대전자를 가로지르는 견막과 연결되는 장경막
중둔근	장골능의 외측면 앞 2/3, 둔부견막	대전자의 후상각과 외측면
소둔근	전둔부선과 하둔부선 사이의 장골의 외측면	대전자 전면의 최상부
이상근	천골의 전면	대전자 상면의 내측부
비복근	대퇴골의 내외과	아킬레스건
가자미근	비골두의 후면, 경골의 내측면 중간 1/3	아킬레스건
후경골근	굴간막, 비골의 내측면, 경골의 후면부외측	발의 아치를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뼈의 족저부
장무지굴근	비골후면 아래 2/3	무지의 원위지골
단무지굴근	입방골	무지의 근위지골의 각 측면

### Ⅲ. 고찰

#### 1. 수태음폐경

<靈樞, 經脈篇>에서 “是動則病肺脹滿, 膨脹而喘咳, 缺盆中痛, 甚則交兩手而瞀, 此爲臂厥, 是主肺, 所生病者, 咳, 上氣, 喘, 渴, 煩心, 胸滿, 臑臂內前廉痛厥, 掌中熱, 氣盛有餘, 則肩背痛, 風寒汗出中風, 小便數而欠. 氣虛則肩背痛寒, 少氣不足以息, 溺色變. 爲此諸病...”<sup>2)</sup>이라 하여 폐기가 盛할 경우와 虛할 경우 모두 견배통의 증상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2정경의 是動, 所生病을 살펴본 바 견배통에 대한 증상은 手太陰肺經에서만 찾아 볼 수 있었다.

手太陰肺經과 관련된 근육 중 삼각근과 견갑거근의 방사통은 모두 견배부위에 존재하며(Fig. 1-2), 또한 전거근은 근육의 문제가 있을 때의 증상이 흉통과 깊은 숨을 쉴 때 통증이 유발하며, 숨이 찬 것 등으로 보아 肺經의 是動, 所生病의 肺脹滿, 喘咳, 胸滿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sup>2-3)</sup>.

오혜완근은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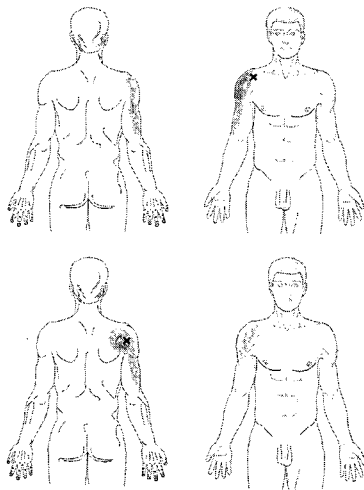


Fig. 1. 삼각근의 압통점 및 방사통<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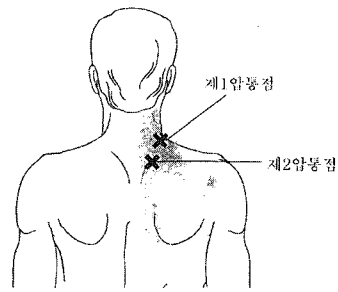


Fig. 2. 견갑거근의 압통점 및 방사통<sup>3)</sup>

#### 2. 手少陰心經

手少陰心經과 관련된 근육인 견갑하근은 견갑골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액와에서 後面으로 압진하여야 축진이 가능한데 심경의 起始穴인 極泉은 인체에서 유일하게 액와에 존재하고 있는 혈이므로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다<sup>4)</sup>. 또한 <靈樞, 經脈篇>에서 心經의 是動, 所生病에 대해 “是動則病益甚, 心痛, 渴而欲飲, 是爲臂厥, 是主心所生病者, 目黃, 脇痛, 臑臂內後廉痛厥, 掌中熱痛, 爲此諸病...”<sup>2)</sup>이라 하였는데 견갑하근의 방사통은 상완을 따라 팔목까지 이어지므로<sup>3)</sup>(Fig. 3) 是動, 所生病의 臂厥, 臑臂內後廉痛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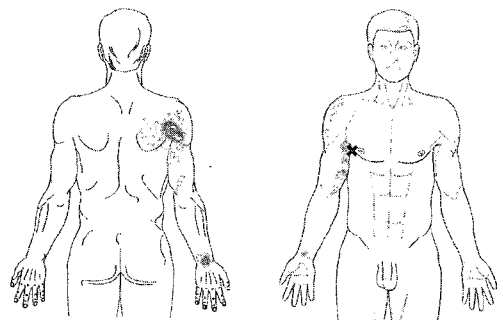


Fig. 3. 견갑하근의 압통점 및 방사통<sup>3)</sup>

### 3. 手厥陰心包經

手厥陰心包經과 연관된 근육인 봉공근, 박근, 내전근,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상근, 비복근, 가자미근, 후경골근, 단무지굴근, 장무지굴근 등은 앞서 肺經과 心經에서 밝힌 是動, 所生病 및 근육의 방사통과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12正經과 연관된 근육을 살펴본 바 心包經만이 하체에 국한된 관련 근육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연관 근육이 하나인 經絡은 배제하였다).

하체를 주관하는 대표적 경락은 足少陰腎經으로 써 이에 관해 <素問, 水熱穴論>에서는 “黃帝問曰 少陰何以主腎 腎何以主水 岐伯對曰 腎者至陰也. 至陰者 盛水也”<sup>5)</sup>라 하였고, 朱丹溪는 <格致餘論, 鼓脹論>에서 “心肺 陽也 居上 肝腎 陰也 居下 脾居中 亦陰也 屬土”<sup>6)</sup>라 하여 腎이 가장 陰의인 장기로써 인체의 가장 하부를 주관하고 있음을 밝혔고, <東醫寶鑑, 足篇>에서는 “尺脈虛弱 緩瀉而緊 病爲足痛 或是痿病…厥論寒熱 皆有腎之精氣 內竭而成也”<sup>7)</sup>, <素問, 痿論>에서는 “腎氣熱 則腰脊不舉 骨枯而髓減 發爲骨痿”<sup>5)</sup>이라 하여 腎氣의 熱로 인해 腎陰이 손상되면 골수가 衰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兩足의 마비로 이어진다고 하여 腎과 하체의 병증에 대한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또한 心包와 腎은 모두 命門相火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에 대해 劉完素는 <劉河間傷寒三六書, 傷寒直格論>에서 “命門者 右腎也 屬火 不屬水 乃手厥陰心包絡之藏”<sup>8)</sup>이라 하여 命門이 腎과 心包라는 이론을 제시하였고, 李梴은 그의 저서 <醫學入門, 臟腑條分>에서 “命門下寄腎右 而絲系曲透 膀胱之間 上爲心包 而膈膜橫連 脂漫之外”라 하였고, 그 注에서는 “心包卽命門 其經手厥陰 其腑三焦 其臟心包絡”이라 하여 역시 命門을 腎과 心包로 보았다<sup>9)</sup>.

여기까지 살펴본 바 手厥陰心包經과 근육들간의

연관성은 腎과 하체와의 관계, 그리고 心包와 腎과의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오혜완근은 특별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고, 手厥陰心包經에서는 논리의 비약이 있었으며, 12正經과의 연관성이 모두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임상예참고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IV. 결 론

응용근신경학(A.K)에서 手三陰經과 연관된 근육과의 관계를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手太陰肺經과 삼각근, 견갑거근의 연관성은 是動, 所生病의 견배통에서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전거근은 근육 이상시 증상에서 연관성이 있었으며, 오혜완근은 특별한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2. 手少陰心經과 견갑하근의 연관성은 견갑하근의 위치와 極泉穴이 일치하는 것과 是動, 所生病과 견갑하근의 방사통이 일치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었다.
3. 手厥陰心包經과 봉공근, 박근, 내전근,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상근, 비복근, 가자미근, 후경골근, 단무지굴근, 장무지굴근과의 연관성은 腎과 하체와의 관계, 心包와 腎과의 命門에 대한 밀접성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1. 데이비드 윌터. 응용근신경학. 서울: 대성의학사. 2002:22-25,322,406,420
2. 洪元植.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圓.

1985:79-82

3. 최호영. 임상근육학. 서울: 대성의학사. 1999:131,  
. 189,205,212,337,406,428,449,519
4. 최용대 外. 침구학. 서울: 集文堂. 1993:424
5. 洪元植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264,340
6. 朱丹溪. 格致餘論. 서울: 대성문화사. 1993:87
7.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4:302
8. 陳夢雷. 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644
9. 李梴. 醫學入門. 서울: 대성문화사. 1990:362